

시론

성적보다우정-기술의 범람시대, 왜 다시 '소중한 친구'인가



김준식

동신대학교 에너지경영학과 교수

세상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시를 쓰고,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며, 가상 세계가 현실의 영토를 침범하는 시대다. 거대한 기술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생산성'과 '속도'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관계를 효율 중심으로 재편해 왔다. 하지만 이 격변의 소용돌이 해박판에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가 '천재적인 통찰력을 현실에 구현한 사람'이라며 극찬했던 사상이 찰스 핸디(Charles Handy)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전적인 가치를 꺼내 들었다. 2024년 12월, 아흔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마지막까지 기술 시대의 인간 소외를 우려하며, 우리가 돌아 가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직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손주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유작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를 통해 기술이 아무리 세상을 뒤흔들어도 사랑, 공정, 그리고 우정 같은 삶의 근원적인 가치는 결코 마모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사회적 성취를 위한 '중요한 관계'보다, 영혼의 안식을 주는 '소중한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조언한다. 우리는 흔히 '중요한 친구'와 '소중한 친구'를 혼용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거대

한 강이 흐른다. 중요한 친구는 대개 '도구적'이다. 나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거나 유익한 정보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 자본의 목록에 가깝다. 반면 소중한 친구는 '존재적'이다.

찰스 핸디는 조직과 사회의 구조가 해체되는 '포스트폴리오 인생'을 예견하며, 개인이 고립될수록 기댈 곳은 거대 조직이 아니라 '우정'이라는 사적인 연대라고 보았다. 디지털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정보를 끊임 없이 제안하지만,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잔을 기울여주지는 못한다. 챗GPT는 정답을 말해 줄 수 있어도, 내 눈빛에 담긴 우울의 농도까지 읽어내지는 못한다.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나를 '유용한 수단'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대우해주는 친구다. 필자는 현재 대학 교양교과목인 '삶과 죽음' 수업에서 이 통찰을 학생들과 나눈다. 죽음이라는 생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우리 곁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핸디의 조언은 마른 땅의 단비와 같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문적 성찰이 개인의 다짐을 넘어 사회적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 정책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엔 기술 활용 능력과 디지털 숙련도에만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 그러나 정작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겐 절실한 것은 타인과 깊게 교감하고 정서적 평형을 유지하는 '관계의 기술'이다. 미래 교육 정책은 인성 교육을 디지털 기술 교육의 부수적인 보완재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 대신 인간 사이의 정

서적 연대와 공감 능력 배양을 교육의 핵심 역량이자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과 과정 전반에 '사회적 감성 학습(SEL)'을 전면 도입하고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협력적 리더십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현재의 성적 중심, 줄 세우기식 평가 체제는 학생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들어 진정한 우정의 형성을 방해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발표·토론 중심 수업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기술이 정교해지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할수록 인간만이 나누는 온기는 더욱 귀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 교육은 계산된 데이터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다움의 본질, 즉 '소중한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 주는 가장 따뜻한 지혜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쓸모를 따지는 세상에서 '마음의 사치'라 불릴 만큼 순수한 우정을 나누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존엄을 지키며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 결국 교육의 성패는 얼마나 뛰어난 기술자를 양성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랑하고 연대할 줄 아는 인간을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바로 찰스 핸디라는 거장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社說

기초 다진 아시아문화수도 20년 성과 이어가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20년을 맞아 광주의 전반이 문화적 환경으로 전환됐다는 평가 속에 일부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04년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지만 지역사회의 슬한 건의에도 국비 지원은 30%대에 머물러 있다. 차별화된 정체성과 브랜드 전략에 더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기초 인프라를 다지는 데 성공했다. 광주시가 개최한 포럼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 구체 수치가 드러났다.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개관 이후 연평균 185만명이 찾고 있으며, 콘텐츠의 74%를 직접 기획·창작하는 산실로 자리잡았다. 도서관은 2008년 12개에서 2024년 30개로, 박물관은 6개에서 13개로, 미술관은 4개에서 14개로, 문예회관은 5개에서 9개로 각각 증가했다. 생활문화센터는 14개가 생겼다. 이들 기반시설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501만명에서 733만명으로 81% 늘었다. 또 문화산업 매출은 사업 초기 대비 300% 이상 급증했고, 특히 애니메이션·게임·실감콘텐츠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웠다. 제작 지원, 인력 양성, 투자,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의 밑거름을 그려냈다. 동명동과 양림동, 전

일빌딩245 등으로 주요 동선 형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의 계기도 만들었다.

비약적인 성장세라 할만하다. 이전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 도약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업인드레도 보수정권에서 특특히 확대를 당해왔다. 국비와 지방비 5대5매칭도 조정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당초 7대 문화권에서 5대권으로 재편된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포럼 참석자들은 미미한 수준의 예산부터 대폭 확대하고, 역사적인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 관공체계를 구축하며, 인공지능(AI) 콘텐츠 등으로 문화산업 협력 생태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유효기간을 2036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뒀다.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며 확장하는 3.0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모지에서 거점으로 거듭났다. 앞으로도 다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역할해야 한다. 문화가 도시의 중추적 기능을 맡고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 시민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 행정, 열린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조직위의 약속 꼭 이행돼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행사장 조성, 안전 관리, 숙박·음식 등 분야별로 촘촘하게 재점검해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조직위는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일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유했다.

먼저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분명히 했다. 돌산 진도지구 주행사장의 공정률은 62%로, 도로 포장 등은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것으로 했다. 참가 국가는 총 30개국로 현재 프랑스·그리스·중국·일본 등 27개국과 3개 국제기구가 확정됐으며, 5월까지 3국을 추가할 계획이다. 관람객은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단체의 경우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MICE 및 향우회 연계 등을 통해 수요를 확대한다. 실제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와 1천100만인 상당의 입장권 구매 약정을 맺었다.

9월5일 개막이다. 진도지구와 개도·금오도 일원, 박람회장 등 여수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첫 국제행사로서 더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과 지원을

표명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챙기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했다. 박람회를 계기로 머물고 다시 찾는 섬 여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섬관광 시대를 본격화한다.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과는 달리 순조로운 편으로 보여 안심하게 된다.

항만 내방치 선박과 쓰레기 정비는 물론 주차와 태풍 등 기상 대응을 위한 안전 대책까지 일체의 허점이 없어야 한다. 정밀 시뮬레이션을 반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직위는 당초로 드림대로 내부 전시연출까지 마무리해 7월 말 준공한 뒤 8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지속적 소통 의지를 피력했다. 공사 진행 등 준비 상황을 낱낱이,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한다. 세계박람회 주재처럼 바다와 미래를 이어 전남의 새 도약을 이끌어낼 견인차가 돼야 한다.

국민적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순환해야 한다. 제반 인프라와 함께 적극적 홍보·마케팅도 뒤따라야 한다. 섬의 가치, 매력을 만끽할 글로벌 해양문화축제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문화난장



강은경

前 함평손불중학교 교장

동이 뜨기 전, 집 앞에는 수영장에 가기 위해 나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환경미화원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기상을 하기 전부터 거리에 나와서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 수영이 끝나고 나오면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다. 노란 조끼와 갓발을 든 학부모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는다. 그 모습들은 늘 따뜻하고 아름답다.

그들을 보며 나의 봉사활동을 생각해 본다. 퇴직 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보았다. 함께 하는 독서, 꾸준한 운동, 여행, 악기 연주, 봉사활동 등이었다. 특히 취미를 봉사로 이어가는 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이 리스트를 적어놓고서 꼭 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가능한 일부터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다.

난타는 퇴직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덧 공연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행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사 공연도 자주 하지만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이뤄지는 재능 기부 활동도 자주 있다. 기부활동은 일반 공연보다 더 의미가 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당나라 궁' 복을 치며 춤을 추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거나 함께 춤추곤 하신다. 어르신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덩달아 신이 난다. 무릎길 문화해설사 자격증도 마음 먹고 뒀다. 공부한지 1년 만에 취득한 이 자격증으로 인하여 나는 아껴가 우뚝해진다. 무등산 아래 무릎길을 걸으며 나의 건강도 챙기지만 선조들의 지혜와 무등정신을 알리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키울까 싶었던 늦둥이 딸이 벌써 대학 3학년이다.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나온다. 어렸을 때 몸이 약했기에 강하게 지라는 모습이 고맙기 그지 없다. 해서, 몇 년 전부터 딸의 이름으로 어린이 재단에 작은 기부를 하고 있다. 그 기부금이 험뎠고 가난한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글이 도착할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든다.

혼자서는 역부족인 봉사활동도 몇몇이 함께 하면 훨씬 체계적이면서 꾸준하게 이루어진다. 마이클이슈터의 '편암함의 습격'에서는 수렵 시대의 인간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장엄한 사냥에는 팀워크가 필요했다. 남자는 여자를 매머드와 홀로 맞서는 것

은 자살행위다. 하지만 팀이라면 해볼 수 있었다. 이때부터 우리 조상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단지 생존을 넘어 더 나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현대 사회는 편리한 아파트 생활, 1인 가구의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개인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 외로움, 고독사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안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우리 개개인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작은 봉사활동부터 실천하는 일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인간은 타인을 위해 봉사를 할 때, 몸에서 가장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장수한다.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직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운 시간을 얻은 나는 자신을 잘 챙기고 남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에 동참하고 싶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그럴 듯한 성공만이 아니라 안으로 내실을 기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독자투고

개화기인 5월이 되면 유독 눈에 띄는 예쁜 꽃이 있다. 바로 흰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진 양귀비 꽃이다. 이처럼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는데 식물이지만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아주 위험한 식물임을 모르고 도심과 농촌에서 무심코 재배하는 경우가 있어 경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배 농민들의 상당수는 연령이 고령이어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경우가 많고 일부 주민들은 관상용으로 꽃이 예뻐서 기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배양이 치료 등 민간요법 상비약으로 사용하려고 텃밭이나 화분에 재배하는 가하면 심지어는 가족의 설사 현상을 줄일 때 사용하려고 재배하거나 고기를 싸 먹으면 맛있다는 이유로 키운 경

양귀비 화려함의 이면(裏面) 경계하라

우도 있다고 하니 단순한 실수로 처벌하기에는 도를 넘었다고 본다.

마약인 양귀비와 관상용꽃 양귀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마약 양귀비와 비슷한 꽃양귀비는 일명 개양귀비라고도 하는데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식물이고 아편을 생산하는 씨방이 형성되지 않고 꽃대와 꽃받침에 솜털이 있다. 결론은 마약 재료인 양귀비는 꽃대와 꽃받침에 솜털이 없으나 관상용인 꽃양귀비는 솜털이 있다는 점이다.

양귀비는 잎·줄기·열매에 아편의 원료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그 자체가 마약성분

이기 때문에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귀비는 습관성·존속성이 강한 마약 원료 식물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과거 민간요법으로 혼동해 안타깝게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주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실령 실제 상비약으로 효과를 보더라도 중독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길 바란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상서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카시 광장

숨길 수 없는 사랑

김혜숙

송송 툇린 바람벽에 기억은 계절 따라 바뀌고
모서리 없는 언니의 맨 마음에 삶의 씬을 얻는 날
뜨거운 속 눈물 닦는다

*** 시작노트**
문신같은 아픔 안고 찾아온 언니 집
가시 돋은 모난 말 한마디 못하는
언니는 말없이 무소속에 불을 지펴
내가 좋아하는 두부를 만든다
숨길 수 없는 언니의 사랑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편집지원부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예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